

장지연의 ‘친일’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유교적 세계관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

박선영**

coreani1026@yahoo.co.kr

Contents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시각 및 방법
4. 조선 후기의 대외 관념과 세계관 : ‘사대’(힘)와 ‘중화’(도덕)의 이원주의
5. 장지연의 이원주의적 세계관
6. 일제시대 장지연의 언론활동: ‘친일’적 언론과 민족주의적 언론의 혼재
7. 결론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some social arguments on Chang Ji-yeon for his so-called ‘conversion’ and they often seem too emotional or not fair enough. Then what would be the more practical point of view on this problem? This paper suggests that we first note the coexistence of conflicting inclinations in his thoughts which are the ‘nationalistic’ and the ‘pro-Japanese’ at the same time, and we need to explore the reason of the fact. The subject for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o grasp the world-view of Chang Ji-yeon and its transition by analyzing his way of understanding of social Darwinism. Second, to compare his world-view to that of the predecessor era of his time. The result reveals that Chang Ji-yeon to the end had remained in the realm of traditional Confucian world-view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dualism of ‘power’ and ‘moral’ and from this fact we can infer the true meaning of what we call as his ‘conversion’.

Key Words : Chang Ji-yeon, ‘pro-Japanese’controcersy, conversion, Confucian world-view

* 심사자 선생님들의 지적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KRF-2007-362-A00019)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2008년 한국 언론학회 하립 신진학자 연구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최근 제기된 장지연 선생(이하 존칭 생략)의 친일 논란과 관련, 그의 ‘변절’로 알려진 행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서술한 것이다. 장지연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개신유학파로 분류되는 언론인으로서 한말 ~일제치하라는 혼란과 불행의 시기를 살다가신 우국지사였다. 이런 그에게 ‘친일’이라는 평가를 내릴만한 요소가 있었다면 우선은 그 연유를 사상의 전개과정 속에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문제를 장지연의 ‘변절’ 내지는 ‘친일’로서 규정해버리기에 앞서 그의 말년의 행적¹⁾ 속에는 ‘친일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이 혼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의 초점 또한 장지연의 ‘변절’ 내지 ‘친일적’ 행적의 존재 혹은 그에 대한 가치 평가에 두기보다는 그와 같은 민족주의자에게 ‘친일적’ 요소와 ‘민족적’ 요소가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는 데에 두고자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조상들의 ‘변절’ 혹은 ‘친일’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우선 그간에 진행되어온 장지연의 변절에 관한 논란과 학계의 대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장지연이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 기고했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으나 그보다 앞선 『경남일보』주필 시절에도 장기간 친일행위를 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지연의 ‘친일’ 행적에 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또 2008년 4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사명단에 장지연이 포함됨으로써 이제까지 언론계의 선각자로 추앙받아온 그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양대 축은 장지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사회단체와 학자,

1) 일제시대 장지연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강명관(1987), 김도형(2000), 정대수(2005)의 글을 참조

언론과 그들에 맞서 장지연을 옹호하려는 입장이다. 언론학계에서는 정진석, 정대수, 김남석 교수 등이 후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왔다. 이들은 「시일야방성대곡」 등 초기의 항일적 언론활동이 장지연의 애국적 면모로서 부각되어 온 만큼, 말년의 행적을 포용적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이며, 반대 입장에서는 그의 말년 행적을 초기 행적만큼 중시하면서 예외적인 관용을 배제하려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양측 모두 이 논란에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즉 옹호 측은 주로 '합방' 이전의 행적에 중점을 두면서 심정적 옹호론을 펴는데 그치고 있고, 비난 측은 '합방' 이후의 친일적 글들의 존재를 중시하면서 '친일'을 기정사실화 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 양측 모두 왜 그가 그러한 사상적 궤적을 그릴 수 밖에 없었는가는 점을 생각해보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재현 교수의 지적²⁾처럼 그가 만일 절필했다라면 오늘날의 불명예를 입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언론활동을 계속했던 것은 왜인가? 다른 친일파들처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글을 계속 썼던 것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³⁾ 그렇다면 그의 '친일적' 언론활동은 사상상의 문제로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의 행적에 대한 선부른 가치평가를 내리기 이전에, “당시 지식인의 고뇌와 내면 풍경”⁴⁾을 좀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학계에서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정대수 교수는 “장지연 선생의 친일 글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생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정도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언론사의 보다 큰 맥락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며 이 문제는 “한국언론사의 왜곡을 바로잡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하였다.⁵⁾ 김남석 교수는 장지연이 갖는 근대인식의 한계를 통해 언론사적 평가를 시도하면서,

2) 2005년 12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장지연의 항일과 친일언론' 토론회에서의 발언

3) 정진석 교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팔아먹는 자가 친일파다. 그러나 장지연은 그런 행적을 보이지 않았다...장지연의 자강주의는 1910년 일제 강점 이후에 점차 강성한 일본의 아시아 제패를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긍정하는 쪽으로 변질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지연이 적극적인 친일로 나아갔던 것은 아니다. 그는 더욱 유교에 매달렸고, 문명화를 위한 유교의 개선과 진흥을 강조하였다. 이는 장지연의 사상적 한계였던 것이다”라고 평가했다(『월간조선』2005년 5월호; 정대수, 2005, p.21에서 재인용).

4) 2005년 12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장지연의 항일과 친일언론' 토론회에서의 경남대 철학과 김재현 교수의 발언

5) 정대수, 2005, pp.27~28

“장지연의 근대인식의 한계와 언론인으로서 장지연의 열정 간의 커다란 간극을 이해하는 데는 그 시대와 지식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⁶⁾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사명단 발표 이후 장지연 선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극명한 일례로, 『경남도민일보』의 김훤주 기자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장지연의 사상적 한계(사회진화론에의 굴복, 동양주의에의 경도)를 지적하면서 장지연은 변절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일관된 친일파였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⁷⁾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런 식의 주장은 너무나 성급하다. 김남석 교수가 지적한 ‘지식인이 처한 시대적 한계’와 거기서 파생하는 ‘사상적 한계’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연구의 시각 및 방법

그럼 한 사상가의 ‘사상적 한계’를 살펴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그 사상가가 당대에 성취한 사상이 전대(前代)의 사상에서 얼마나 진보·발전 혹은 정체·후퇴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이와 같은 판단 아래, 장지연의 세계관이 전통적인 유교적 세계관⁸⁾ 즉 조선 후기의 지배적 국제 질서관념에 바탕을 둔 사유구조에서 얼마나 변화된 것이었는지 혹은 변화되지 못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지연이 언론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1890~1900년대 사상운동의 흐름은 위정척사사상, 동학사상, 개화사상의 세 가지가 있었고, 개화사상은 서구 및 일본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독립협회 계열의 급진주의와 개신유학파를 중심으로 한 온건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경북 상주 출신의 장지연은 후자의 대표적 인물로, 영남학파의 후예로서 유교적 소양 위에 자라나 성년 이후 근대 문물을 수용

6) 김남석, 2007, p.115

7) 김훤주, 2008

8) 본 논문에서는 대외관념을 축으로 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의 구조와 그에 대한 대응범으로서의 관념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한 인물이었다.⁹⁾ 장지연의 학문적 바탕은 주자학이라는 조선조의 정통 유학에서 비롯되었고, 그는 과거급제자로서 성년 이후에 이르기까지 유교적 전통의 세계 속에 깊이 몸담았던 유학자 출신의 개화 사상가이다. 따라서 장지연의 사상은 그의 유교적 세계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 사상의 변모과정 또한 유교적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파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 시각이다.

본 논문이 전제하는 두 번째 시각은, 한말~일제시대로의 전환기가 조선조의 명·청 교체기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해보자는 것이다. 전통 한국의 국제질서 관념을 설명하는 두 축은 ‘사대(교린)’와 ‘중화’이다. 이 두 관념은 각기 다른 시대에 성립되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모순을 내포한 채 공존하게 된다. 그 현실적 표출 형태는 중원의 실질적 지배자인 청(淸)에 대한 ‘사대’와 숭명의리론(崇明義理論)의 강화라는 ‘중화’ 관념의 공존이었다. ‘사대’가 청에 대한 대외 관념이라 한다면, 조선은 청 이외의 나라들과는 ‘교린’ 관계를 맺었었고, ‘사대’와 ‘교린’은 같은 맥락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청(淸)도 원래는 조선에게 ‘교린’의 대상에 불과하던 금(金)이 명(明)을 이기고 중원을 차지하면서 조선에게 ‘사대’를 강요, 조선이 이에 굴복함으로써 조선의 수공국이 되었다. 이는 마치 조선 후기~한말 ‘교린’의 대상에 불과하던 일본이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일소하고 최종적으로 조선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완성, 조선의 ‘종주국’이 되었던 것과 흡사하다.

물론 ‘조공-책봉’이라는 형식적 지배관계 아래 내치의 자유를 보장받았던 조청(朝淸)간의 전근대적 국제관계를, 근대적 식민 지배를 매개로 한 한일(韓日) 관계와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선은 근대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적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외세의 영향권 속으로 편입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수백년 간 한국인의 세계관을 규정했던 ‘사대’(‘교린’)와 ‘중화’라는 대외 관념이 쉽게 청산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새 ‘종주국’으로 부상한 외세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교린’의 대상이었던 일본이란 점에서, 낡은 대외 관념이 새로운 대외 관념으로 급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전

9) 장지연의 유교적 인간으로의 형성 과정에 관해서는 임종진(2004)을 참조.

제 아래, 필자는 조선 후기 대외 관념의 추이를 개관하고 그 특징을 한말~일제 시대 장지연의 세계관과 비교해보고자 한다.¹⁰⁾

그럼 장지연의 세계관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개화 지식인들은 전통적 국제관계에서 근대적 국제관계로의 이행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의미를 외래 사상의 수용을 통해 파악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당시 개화 지식인들의 세계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회진화론을 장지연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였으며, ‘망국’이라는 상황 변화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축은 첫째, 사회진화론에서 강조하는 약육강식의 원리 즉 ‘힘’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둘째, 그와 같은 현실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관념론(도덕론)을 구상했는가에 두었다.

4. 조선 후기의 대외 관념과 세계관 : ‘사대’(힘)와 ‘중화’(도덕)의 이원주의

‘사대’는 정치·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며 그 관계는 ‘조공-책봉’¹¹⁾에 의해 유지되었다. 동아시아 세계에서 ‘조공-책봉’ 관계는 국가 간의 군사적인 힘 관계로 인해 조성된 긴장을 완화시켜 양국 간 관계를 계서적으로 정형화하려했던 것으로, 조공국과 수공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사대자소(事

10) 장지연이 조선조의 마지막 유자(儒者) 세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장지연을 본질적 의미에서 조선조 말기의 인물로 위치지우고자 한다. 또한 1910년대의 ‘친일’행적이 문제인 만큼 1900년대와 1910년대를 구분해서 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거시적인 시간성에 기반한 세계관을 문제삼을 경우, 두 시대의 본질적 차이를 상정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1905년의 을사조약은 본질적으로 1910년 ‘합방’의 실질적 단초였고, 그 1905년의 을사조약은 러일전쟁의 결과 초래되었고, 그 전의 청일전쟁, 강화도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 1876년이래 1910년까지는 크게 ‘조선의 말기’로서 일제의 침략이 심화되어간 시기로 묶어볼 수 있다. 또 일제시대의 장지연의 활동은 그의 삶 전체에서 최만년에 해당되며, 그의 사유구조는 이미 ‘조선조 말기’로서의 한말에 형성되었다. 따라서 세계관을 논하는 본 논문에서는 미세한 시대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11)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이(華夷)관념 즉 화(華)와 이(夷)를 구분하는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천하(天下)관념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시킨 규범적 국제질서를 가리킨다.

大字小)의 예(禮)라는 명분을 통해 합리화되었다.¹²⁾ 그러나 후기 조선에 이르면 임진·병자의 양란을 거치면서 형성된 '중화'적 질서 관념이 지배적 관념으로 부상하면서 '사대'가 원래 갖고 있던 상황주의적 지향을 감쇄(減殺)시키게 된다. '중화' 관념은 척화론자들의 '숭명의리론(崇明義理論)'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그 골자는 명의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춘추대의(春秋大義)'라는 역사적 규범주의와 결부시켜 공자가 주창한 '존주양이론(尊周攘夷論)'을 조선의 대외 이데올로기로 삼았다는 것이다.¹³⁾ 이는 명이 망한 후에도 명과의 군신관계라는 사대적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국가간 관계를 규범주의적으로 인식하려는 것이었고, 이는 중화의 문화적 이념이 주 왕실에서 명으로, 명에서 조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중화(小中華)' 관념을 낳았다. 존주 작업을 통한 숭명 의식의 고취와 실제 외교관계로서의 대청(對淸) 사대는 모순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힘의 형세상은 불가피 사대를 취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제반 의식은 형식적이고 관행화된 의례 정도로 여기면서 '사대'와 '중화'를 양립시켜갔다.¹⁴⁾ 이와 같은 조선 후기의 대외 관념은 북학파의 경우에도 미세한 변화만을 보였을 뿐, 근본적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또 '사대'의 다른 한 측면이랄 수 있는 일본과의 '교린' 관계에서도 조선의 규범주의적인 대외관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조선은 일본이 일방적 혹은 상황주의적인 대응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정의(情誼)'와 '후대(厚待)'라는 교린의 '예(禮)'와 '도(道)'에 집착하여 비현실적이리만큼 인정주의적인 외교관계를 지속했던 것이다.¹⁵⁾

요컨대 조선의 대외관은 문명과 야만을 이념적으로 구분하는 '전통적 화이론의 관성'과 그로 인한 규범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대'와 '중화'라는, 현실과 관념의 모순적 양립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¹⁶⁾ 그 특징은 '중화' 관념이 지향하는 역사적 규범주의와 보편주의의 우위¹⁷⁾에서 찾을

12) 박충석, 1982, pp.48~52; 유미림, 2002, pp.282~283; 유근호, 2004, pp.24~27

13) 박충석, 1982, pp.60~66; 유미림, 2002, pp.283~284; 유근호, 2004, pp.88~92

14) 유미림, 2002, pp.296~302

15) 유미림, 2002, p.328

16) 최연석, 2007, p.119

17) 이는 '사대'가 원래 상황주의적이고 개별주의적인 지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수 있다. 필자는 조선 후기의 이와 같은 세계관의 특징을 (1)‘현실’(‘힘’의 세계)과 ‘관념’(‘도덕’의 세계)’의 이원주의 (2)‘관념’의 ‘현실’에 대한 우위로 정리해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전통적인 유교적 세계관이라 함은 ‘관념의 우위 속에서 현실과 관념이 이원화된 세계관’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통적 세계관이 장지연의 사상에서 어떻게 ‘계승’ 되는지를 살펴보자.

5. 장지연의 이원주의적 세계관

5.1 사회진화론 수용에 보이는 특징 - ‘힘은 힘, 도덕은 도덕’

장지연은 한국을 둘러싼 당시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변국(變局)’의 상태로 인식했다.

“천하의 대운이 변하고 있다. 어떤 이는 복희 황제로부터 주나라에 이르러 크게 변하여 전국 진한이 시작되었으며 전국 진한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러 한번 변하여 동서남북 오주 세계가 서로 닿아 강자는 방자하게 오르대고 약자는 복종한다. 힘센 놈은 어린 새끼를 삼키고 제를 칭하고 군을 칭하며 일대 변국이 되었다”¹⁸⁾

이는 그가 중국의 변법론자들을 통해 전래된 사회진화론을 흡수하면서 형성한 인식인데, 장지연의 사회진화론 수용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은 천하의 변화가 지극하다. 세계의 풍조가 고도로 발달되어 육주가 서로 통하고 인종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지식의 범위도 날로 확대되어...우승열패와 강신약굴(強伸弱屈)의 현상은 우리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바이다.”¹⁹⁾

이러한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대응법은 ‘자강(自強)’이었다. 문제는 그가 ‘강(強)’ 즉 ‘힘’의 성격을 어떻게 보았는가인데, 그

18) 『위암문고』 권3 상정부서(上政府書) p.104

19) 『위암문고』 권6 황성중앙학회취지문(皇城中央学会趣旨文), pp.246~247

는 ‘강’이란 온화하고 유약한 ‘남방지강(南方之強)’도 아니며 근육과 혈기의 용맹을 뜻하는 ‘북방지강(北方之強)’도 아니라면서 오직 ‘성실히 노력하는 것(勉勵)’이 ‘자강하는 것’이라 하였다.²⁰⁾ 무력적인 ‘강폭강용지강(強暴強勇之強)’을 부정하는 이러한 인식은 점진적 자강론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장지연은 한국의 문명을 서구 문명에 비해 열등한 수준으로 파악한 것일까? 그는 “문명이란 한갓 문(文)을 숭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을 구하기에 힘쓰고 무(武)를 함께 구비하여 문무를 병용 신장시키려 할 때 이를 문명의 실(實)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윤리 도덕을 수반하지 않은 부국강병은 문명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였다.²¹⁾ 또 문명의 기초는 윤리 도덕 등 동양의 전통 학문에 있다고 보았으며,²²⁾ 한국의 문명 수준은 오히려 ‘개화와 진보의 극에 이른 상태’라는 것이 장지연의 진단이었다.²³⁾

이는 사회진화론이 전제하는 진보사관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서, 순환론적 사고를 기초로 한 발상이다. 한국은 이미 진보의 극에 달한 까닭에 자연의 순리로서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니, 지금의 한국에 필요한 것은 신학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라 보았다. 구학이 날로 쇠퇴해진 것은 학자들과 정치의 잘못이지 구학 자체가 본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동양의 학문은 본래 수시 변통(隨時變通)의 정신을 자체내에 포괄하고 있으니 구학의 기본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그 위에 신학의 효용성을 가미하여 학문의 풍조를 진작시키고 교육과 식산흥업에 힘쓰자는 것이다. 그의 이 순환론적 사고는 당대의 서구 제국주의를 고대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며,²⁴⁾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주로 국민의 지력(知力)에 두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²⁵⁾

20) 『장지연전서8』 자강주의(自強主義), pp.460~461

21) 『위암문고』 권8 문약지폐(文弱之弊), p.352

22) 『장지연전서8』 신구학(新舊學)을(乙), p.79

23) 『장지연전서8』 신구학(新舊學) 갑(甲), p.77

24) 『위암문고』 권8 호가호위(狐假虎威), pp.370~371

25) 『위암문고』 권9 독사유감(讀史有感), pp.389~390

5.2 ‘도(道)=동양’을 매개로

장지연은 현실 세계가 힘의 우열에 따라 좌우됨을 인식하고 개화와 자강의 필요성을 깨달았지만 ‘힘’의 강권적, 폭력적 성격에 대해 유보적 인식을 보이는 한편, 세계를 여전히 규범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뚜렷이 드러낸다.

“지금 인륜과 강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으면 개화 탓이라 핑계를 삼아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지만 개화란 과연 일세를 개(開)하여 금수(禽獸)의 지경으로 화(化)하지는 것일까. 오늘날 개화한 만국에도 각각 군신 부자 부부의 분별은 있고 비록 예수교나 이슬람교의 가르침에도 반드시 충군효제의 예절이 있다.”²⁶⁾

그의 문명개화론은 서구 근대 문명의 절대화가 아니며 유교적 문명에 입각한 논의인 것이다. 그는 같은 관점에서 시세의 변화를 ‘상경(常經)’의 영역과 ‘변통(變通)’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변통의 영역은 예악, 형정, 진장, 법도 등 ‘기(器)’의 영역인 반면, 상경의 영역은 오상(五常)의 도덕규범 즉 공맹이 가르친 ‘도(道)’의 영역이다.²⁷⁾ 이러한 관점 아래 상경의 영역을 공유하는 유교문명권으로서의 동양 혹은 동아시아가 자강의 단위로 설정된다. 그는 자강의 기본적 주체를 민족과 국가에 두면서도 한편 동양 혹은 동아시아라는 보편적 단위를 전제하는 것이다. 즉 일본의 침략성을 경계하면서도 동양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양3국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 발상은 일본의 지도를 긍정하는 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컨대 광무개혁 초기 장지연의 대일관(對日觀)에는 ‘만국공법을 저버리고 국모를 시해한 원수의 국가, 반드시 복수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백인종과의 대결에서 황인종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공조해야 할 대상, 나아가 그 지도까지도 감수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²⁸⁾ 또 대한자강회 시절 일본인 고문 오오가키 타케오(大垣丈夫)가 일본을 맹주로 한 삼국동맹설을 주장했을 때 그에 동조했었던 것²⁹⁾과 ‘시일야방

26) 『위암문고』 권3 상정부서(上政府書), p.105

27) 『위암문고』 권3 상정부서(上政府書), p.104

28) 이훈욱, 1990, pp.385~386

29) 『황성신문』1906년 7월 7일자 「송금릉대원장부지서경서(送金陵大垣丈夫之西京序)」

성대곡'에서 한국과의 약속을 저버린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합방' 후 『매일신보』에 실린 그의 글 '일지(日支)친선은 동양 행복'³⁰⁾에서 “동양대국은 오직 일본과 중국 두 나라일 뿐이고 서로 손을 잡고 친선한 다음에야 외부를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5.3 도덕적 유토피아론

그러나 장지연의 자강론이 궁극적 목적을 국권회복에 두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식민지 보호국체제하에서 자주적, 주체적으로 실력을 배양하여 자강과 독립을 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합방'을 전후하여 그의 사상은 점차 약육강식 우승열패의 경쟁적 세계를 상대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변모해가며, 구국의 방도를 유교의 개신(改新)과 확장을 통한 종교개혁에서 찾게 된다. 1909년에는 박은식과 함께 대동교(大同教)를 창교하고 본격적인 종교개혁운동에 뛰어든다. 대동교는 유교적 이상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그宗旨(宗旨)를 본원유교 즉 공자의 대동사상(大同思想)에 두었다.³¹⁾

그렇다면 수백년간 공자를 성현(聖賢)으로 섬기며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아온 조선이 대동의 세계를 구현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장지연은 이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전현(前賢)의 이른바 오래도록 선치(善治)가 없는 것은 어찌 봉당의 해독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런 것이 어찌 유교가 그렇게 한 것일까? 실은 바로 정치가 점차로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다. 그리고 또 유교의 이름을 가차(假借)하여 세상을 속이고도 아닌 듯이 위장하여 부끄러운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의 죄이다. 이는 다만 선왕(先王)의 죄인일 뿐이 아니라 바로 공맹(孔孟)의 죄인이거늘, 이것을 가지고 유교를 죄책하면 유교가 어찌 이를 수궁하겠는가?”³²⁾

30) 『매일신보』 1915년 7월 13일자 기사 「만필소어(漫筆瑣語)72」

31) 대동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 “춘추삼세(春秋三世)의 의(義)로서 만세(萬世)를 위해 태평(太平)의 기본을 만들려는” 종교로서, 유교의 폐단인 “보수(保守)·전제(專制)·독선(獨善)·문약(文弱)·단협(單狹)·허위(虛偽)”가 아니라 “진화(進化)·평등(平等)·겸선(兼善)·강립(強立)·박포(博包)·지성(至誠)을 육대주의(六大主義)로 삼아” 세계 민중을 구하려는 종교였다(『위암문고』 권6 대동교취지문(大同教趣旨文), p.244).

32) 『위암문고』 권5 유자변(儒者弁), p.217; 『조선유교연원』(1998), p.32

즉 ‘군자(君子)’의 유교야말로 진정한 유교이지, ‘유학을 빌어 세상을 속이고 명예를 도적질하는 자’ 즉 ‘소인(小人)’에 의해 타락한 유교는 진정한 유교가 아니라는 것이다.³³⁾ 조선시대의 사회와 당쟁도 현실정치상의 권력투쟁의 소산이지 유학 사상 자체 내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³⁴⁾ 나아가 장지연은 ‘참다운 유교’에 대한 지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나라가 천년 이래로 숭배하고 신앙한 것은 실로 오직 공부자(孔夫子)의 교(敎)였으니, 이제 그 숭배하던 것에서 나아가 이를 새것으로 고치어 참으로 교의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³⁵⁾

장지연의 대동사상은 바로 이와 같은 유교관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대동’이란 예기(禮記) 예운편에 나오는 말로서 유가가 최고의 이상으로 여기는 화평한 사회를 의미한다. 이 예기의 대동설을 춘추공양전의 ‘경삼세론’과 결합시켜 인류의 이상사회인 대동의 세상이 필연적으로 출현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중국의 변법론자 강유위였다. 그는 공자를 유교의 교조로 삼아 국가의 통일적 종교로 만들고자 하였다. 장지연은 강유위의 공자교운동을 원용하여 대동교를 한국민의 국민종교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체로 종교적 신앙이 없는 자는 그 정신이 통일되지 않을 것이고, 그 심지도 확고하지 않을 것이며, 그 백력도 용감하지 않아서 매양 외국의 침략과 구속을 받고도 등한하게 여기기 쉬우므로 자조, 자립할 수 있는 자가 드물다.…참으로 국민의 지식과 힘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사상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국민의 사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 습관된 신앙에서 이를 위하여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펴지 않을 수 없다.…오늘날이 종교를 개혁할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개혁이란 것은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그 근원을 회복시키고 그 참된 것으로 돌이키는 것일 뿐이다.”³⁶⁾

33) 『위암문고』 권5 유자변(儒者弁), p.216; 『조선유교연원』(1998), p.30

34) 『위암문고』 권9 조선유교관(朝鮮儒敎觀), p.404

35) 『위암문고』 권6 대동교육회취지문(大同敎育會趣旨文), pp.244~245

36) 『위암문고』 권6 대동교육회취지문(大同敎育會趣旨文), p.244

그는 이렇게 국망이라는 현실 속에서 정치문제에의 참여 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개혁과 세계평화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동학을 ‘구세주의의 대승법(大乘法)’이라고도 하였으며,³⁷⁾ 존아주의(尊我主義)적 입장에서 대동교를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에 과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³⁸⁾

이처럼 장지연은 사회진화론을 통해 받아들인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현실 세계에 유교의 이상향인 대동의 세계를 대치시킴으로써 현실적 ‘힘’의 세계를 상대화시키려 하였다. 그는 처음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한국이 ‘우자(優者)’명자(明者)‘강자(强者)’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구미열강들이 출현시킨 세계 - 그것은 분열 경쟁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로서 ‘소강세(小康世)’에 불과하다 - 예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세계 즉 대동교의 이상이 실현되는 ‘대동세(大同世)’에서여야 한다는 것이다.³⁹⁾ 이는 ‘힘’의 논리 즉 생존경쟁을 진화의 원리라 주장하는 사회진화론의 정점에, 유교적으로 윤색된 ‘진화의 다음 단계’ 즉 도덕적이며 유토피아적인 대동의 세계를 무리하게 접목시킨 것이다. 다음 글은 장지연의 이와 같은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의 민지가 점차 개벽되고 인문이 점차 계발되니, 그 욕망도 점차로 커지고 교사(巧詐)가 날로 치열해졌다. 이로서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전쟁도 이전에 비해 참혹해졌다.…문명의 세계가 탐구하는 학술이란 곧 살인, 탈인(奪人)일 뿐이다.…그것은 단지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의 관념이다. 슬프다. 이것은 인도(人道)상의 문명관이 완전히 쓸어 없어진 것이니 어찌 인도의 적이 아니겠는가.”⁴⁰⁾

문제는 이것이 “국권회복이라는 현실 목표마저 대동이라는 고차원의 이상 아래 묶어”버림으로써, “태평시대라면 모를까 갈등·격변기에서의 이상은 현실을 견인하기 보다 폭력을 정당화해주는 수단으로 이용당하기 십상”⁴¹⁾이란 점을 간

37) 『위암문고』 권6 대동교육회취지문(大同教育會趣旨文), p.244

38) 장현근, 2004, p.163

39) 강유위는 그의 대동사회론에서 “춘추의 활거세와 소강세와 대동세가 역시 진화의 공례이다”라고 하면서 역사발전단계설인 삼세진화설을 주장했다. 대동세계는 소강세를 경과한 후에 실현되는 진화의 높은 단계이다(우남숙, 1994, p.74).

40) 『위암문고』 권7 여시관(일)(如是觀(一)), p.413

과한 데에 있었다. 이렇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현실 세계와 ‘도덕’을 중심으로 한 관념의 세계를 분리시키고 후자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후자를 통한 전자의 변화를 꿈꾸었다는 점에서, 장지연은 전통적인 유교적 세계관의 이원주의를 답습한 것으로 생각된다.

6. 일제시대 장지연의 언론활동 : ‘친일’적 언론과 민족주의적 언론의 혼재

그럼 이와 같은 장지연의 이원적 세계관이 일제의 강점 이후 그의 언론활동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⁴²⁾

장지연은 1909년 10월부터 진주의 지방지 『경남일보』의 주필이 되어 『황성신문』과 『해조신문』이래 중단했던 언론활동을 재개, 1913년 8월까지 계속한다. 『경남일보』의 발간 목적 중 하나가 경남의 효자 충신 등 유교의 삼강을 잘 지킨 인물들의 전기를 소개함으로써 풍속을 선량토록 하는 등 유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장지연의 유교에 대한 애착과 그를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적 지향을 읽어낼 수 있다. 그가 이 신문의 주필로 있을 당시 『경남일보』는 매천 황현의 절명시(絶命詩)⁴³⁾를 실어 문제가 되었었다. 이 절명시가 유교적

41) 장현근, 2004, p.166

42) 일제시대 장지연의 활동상은 김도형(2000), 강명관(1987)의 논문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43) 『경남일보』1910년 10월 11일자. 「절명시」 사수(四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병환, 2001, pp.177~178에서 재인용)

亂離滾到白頭年
幾合損生却未然
今日真成無可奈
輝輝風燭照蒼天

妖氣掩翳帝星移
九關沈沈晝淚遲
詔勅從今無復有
琳琅一紙淚千糸

鳥獸哀鳴海岳嘯

충의사상의 극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장지연이 지은 것이 유력시되는 천장절 축하시⁴⁴⁾가 이 신문에 실린다.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 대해 초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초빙 제의를 거절했다가⁴⁵⁾ 두 달 후 이 신문에 다수의 글을 기고하게 된 것도 모순적인 행동이다. 그는 1914년 12월 이후 ‘객경(客卿)’이란 필명으로 『매일신보』에 글을 실기 시작, 1918년 7월까지 무려 730여 편을 상회하는 분량의 글을 투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⁶⁾ 이 신문이 일제의 원활한 식민통치를 돕기 위한 총독부의 기관지였음에 비추어볼 때, 이 신문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는 그 자체로 ‘변절’이라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그 기고문 가운데에는 일제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글⁴⁷⁾과 내선일체를 회구하는 듯한 글⁴⁸⁾, 그리고 일제에 유리한 아시아주의를 주장하는 글⁴⁹⁾이 산견된다.

이 신문에 관여하는 동안 그는 ‘매일신보사시회(每日申報社詩會)’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시를 이 신문의 ‘사조(詞藻)’나 ‘현대시단(現代詩壇)’에 실었는데 그 가운데에도 ‘친일’적인 내용의 시가 있다. 예컨대 1916년 12월 하

槿花世界已沈淪
秋灯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者人

曾無支厦半椽功
只是成仁不是忠
止境僅能秋尹穀
當時愧不撰陳東

44) 『경남일보』1911년 11월 2일자.

日出扶桑 赫赫太陽
虹斗毓精 誕我天皇
踐阡四四 聖壽無疆
德惠被溥 威嚴宣光
撫恤羣黎 奠我東洋
於万斯年 地久天長

45) 『위암문고』 권3 기신보사(寄申報社), p.140

46) 강명관, 1987, p.394

47) 예컨대 1915년 1월 1일자 「조선풍속의 변천」, 1915년11월4일~12월15일까지 25회에 걸쳐 연재된 「산업개발의 급무」, 1916년 9월 16일자 「만록(漫錄)-지리관계」 등

48) 예컨대 1917년 6월 8일자 「봉송이왕전하동상(奉送李王殿下東上)」,

49) 예컨대 1918년 3월 19일자 「황백인종전(黃白人種戰)」

세가와(長谷川好道)가 새 총독으로 부임하였을 때 그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시를 실었다.⁵⁰⁾ 하세가와는 을사보호조약 체결 당시 한국주둔군사령관이었던 자로 무단통치를 이어갈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었는데, 장지연은 이 시에서 하세가와가 구면(舊面)으로 낯이 익어 꽃도 예전처럼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환영을 표현 것이다. 또 1918년 1월 1일에 「대정육년시사(大正六年詩史)」라는 이름 아래 실린 시들 가운데 ‘이왕동상(李王東上)’에는 조선과 일본이 융화되어 서광이 빛난다는 구절이 나온다.⁵¹⁾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가 바로 이 신문에 조선의 유교적 전통 문화를 옹호하는 글도 비중있게 실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대동교가 해산된 이후에도 대동교의 취지에 따른 유교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1915년에는 「유교조공자(儒教祖孔子)」라는 글을 이 신문에 실으면서 공자의 유교 창시 경위와 전과 과정을 설명하고 종래 유교 경전에서 빠졌던 ‘이적(異蹟)’을 기술하여 유교의 종교적 요소를 강화하려 하였다.⁵²⁾ 1917년에는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의 저서 등 한국 유현(儒賢)들의 저작물 간행에 참여하였고, 훗날 조선유학사 정리의 효시로 평가받은 『조선유교연원』을 저술한다. 이 『조선유교연원』은 장지연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 어용학자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享)의 조선 유학에 대한 폄하에 울분을 느껴 조선 유학과 주자학을 민족의 전통 사상으로서 옹호하고 그를 널리 계몽하기 위해 이 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그의 사후에 엮어낸 것이다.⁵³⁾ 장지연

50) 1916년 12월 10일자 「환영하세가와총독(歡迎長谷川總督)」

51) 이 시와 함께 실린 「군함축파침몰(軍艦筑波沈沒)」, 「내지대수(内地大水)」, 「제사업속속발흥(諸事業統統勃興)」 등도 비슷한 취지의 시로 읽힌다.

52) 이 글은 『매일신보』 1917.12.15~12.28에 총 12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53) 다카하시는 그의 저서 『조선유학대관』에서 조선 유학의 특성을 고착성, 종속성, 당파성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성격으로 고착성, 종속성, 형식주의, 당파성, 문약, 심미관념의 결핍, 공사의 혼효 등을 꼽았다. 그것은 한국 유학의 다음과 같은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인데, 첫째, 주자학 일변도의 단조로움 둘째, 주자학의 천착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은 변화발전이 적고 독창성이 결여되었으며, 셋째 한국 유학의 현실 사회에 대한 영향은 오직 당쟁에만 국한된 나머지 학과상의 분맥이 곧 당파상의 분맥과 일치할 정도였다는 것이었다(윤사순, 1976). 이에 반발하여 장지연은 『조선유교연원』에서 한국에는 주자학 이외에도 유학의 다양한 학문 경향이 있고 그것들은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특히 조선 후기에는 현실개혁적 경세학풍 즉 실학도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쟁으로 인한 단체성의 결함은 유교 자체의 폐단 때문이 아니며 당파성도 한민족의 본성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다만 조선 중기 이후의 별벌정치의 해독 때문에 생겨났다고 주장했다(이훈옥, 1993). 이 글은 『매일신보』 1917

은 이 책에서 유교의 연원 자체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에서 나온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⁵⁴⁾

또 이 신문지상에서 장지연과 다카하시 사이에 펼쳐졌던 '유자(儒者)·유학자(儒學者) 논쟁'(1915년)⁵⁵⁾에서, 장지연은 주자학적 도통론(道統論)에 근거하여 유학자가 곧 유자라 주장하면서, 철학적 관점에서 유학자와 유자를 구분하려 한 다카하시를 비판하였다. 이상의 논쟁과 저술에는 유교 전통을 민족문화로서 옹호하려는 그의 충심(忠心)과 더불어 유교를 하나의 사상으로 객관화하지 않고 민족정신과 불가분의 종교로 추앙하는 도덕중심주의적 입장이 드러나 있다.⁵⁶⁾ 이밖에도 그의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와 소개는 『대동시선(大東詩選)』(1918년), 『일사유사(逸士遺事)』(1922)등의 발간으로 결실을 맺었다.

7. 결론

이상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장지연에게서는 조선 후기의 지배적 세계관의 특징인 이원주의가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말년에 그가 보인 모순적인 행적을 낳은 모태가 아닐까라는 것이다.

장지연은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자강론의 주창 이후 일제에 의한 망국이라는 현실 앞에서 힘의 논리와는 상충하는 이상주의적 도덕론에 경도됨으로써 '사

년 4월 5일~12월 11일까지 모두 123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54) 오종일, 2005, p.296

55) 다카하시는 조선의 유림을 유자·유학자로 구분하여 전자는 유교를 정치·경제에 적용하는 사람, 후자는 유교를 연구할 뿐 실생활에 응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조선시대의 주자학은 다만 유학자를 배출했을 뿐, 유자는 배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유학이 비현실적이었던 자신의 학설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한다(『위암문고』 권5 번다카하시강연(弁高橋亨講演), pp.218~223; 이훈옥, 1993). 이에 장지연은 유(儒)는 소인유(小人儒)와 군자유(君子儒)로 구분될 뿐 유자(儒者)와 유학자(儒學者)로 구분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고, 조선시대의 주자학이 비현실적이었던 것은 주자학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유학의 본뜻을 잘못 이해하고 정치를 담당한 소인유(小人儒)들 때문이라 주장하였다(『위암문고』 권9 조선유교관(朝鮮儒教觀), pp.401~406; 이훈옥, 1993)

56) 오종일(2005)은 장지연이 조선의 유교가 중국의 유교가 아닌 우리 고유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힘으로써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외세에 굴종할 수 없는 자존한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고 평가한다(p.298).

대(힘의 논리에의 수긍)와 ‘중화’(보편주의적 도덕론)의 모순된 공존이라는 전대(前代)의 이원주의적 세계관을 계승·온존시켰다.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자강론과 유토피아적 대동사상은 병존이 불가능한 개념이지만, 장지연은 이를 종교운동으로 해소코자 하였다.

결국 그는 일본과의 힘 관계에서는 사회진화론을 통해 지배-피지배의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문화이념적 관계에서는 일본에 비해 우월한 조선의 유교적 전통을 옹호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특히 그에게는 황인종 대 백인종의 경쟁이라는 변형된 ‘화이(華夷)’ 관념 속에서 조선의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주의 내지는 동아시아 공동체주의적 발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그에게서 사회진화론적 인식과 대동사상이 공존할 수 있었던 매개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장지연의 대동교운동으로의 경도는 국권회복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대동’이라는 고차원의 이상과 접목시킨 비현실적 관념론이라는 점에서 ‘관념’의 ‘현실’에 대한 우위라는 전대(前代)의 세계관과 흡사하다. 이러한 세계관 아래에서는 힘의 우열로 인한 일체의 지배라는 현실과 조선의 유교적 민족 문화에 대한 긍지 혹은 자존감이 공존할 수 있다. ‘힘’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 민족주의자 장지연에게서 ‘변절’로 보이는 면모가 나타난 까닭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지연의 이러한 ‘사상적 한계’는 전통적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더욱이 장지연은 생애 마지막까지도 조선 유교의 옹호를 통해 민족 문화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다른 애국계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사회진화론이 주장하는 우승열패의 신화와 일체의 패권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조선 문화에 대한 일체의 자긍심마저 잃어버린 채 일체에 동화되어갔고, 그 가운데에서 적극적인 부역자도 나왔다는 사실 또한 장지연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고려 사항이다.

결국 장지연의 민족주의자로서의 활동도 ‘변절’로 보이는 면모도 모두 그의 유교적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말에 그가 보여준 민족적 언론과 애국적 활동이 그가 유교적 인간이 아니었다면 가능했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의 그러한 유교도로서의 철저함 - 전대(前代)의 유교적 세계관의 답습이라는

점에서 - 이야말로 일제하 그의 행적에 그늘을 드리운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아이러니를 내포한다 하겠다.

물론 비슷한 사유구조로 출발했던 개신유학과 출신의 다른 지식인들 중에는 끝까지 독립운동에 투신한 자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장지연의 '변절'적 면모는 일차적으로 장지연 개인에게 귀책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어떠한 구조적 제약 아래에서도 개인의 정치적 행위는 그 자신의 결단과 선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은 민족주의자 장지연의 '친일'적 면모라는 이중성의 의미를 한번 짚은 탈개인화하여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시도해본 시론적 고찰임을 강조하고 싶다.

선인(先人)의 치적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그의 행적에서 후손으로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끌어낼 것인가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더구나 장지연은 세계관이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형적인 '조선 사람'이었고 그런 '조선 사람'의 행적을 현대 '한국인'이 이 시대의 잣대로 선불리 단죄하는 일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나라가 망한 이후 남의 땅이 되어버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자들과 이 땅을 떠났던 자들에 대한 논의는 그들이 처한 서로 다른 상황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감히 덧붙이며 부족한 글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명관(1987) 「장지연 시세계의 변모와 사상」 『한국한문학회연구』9, 한국한문학회, pp.377~422
 국사편찬위원회편(1956) 『위암문고』, 국사편찬위원회, 권5 pp.216~232/권6, pp.243~247/
 권8 pp.330~381/권9 pp.401~419/권10, pp.432~444
 김남석(2007) 「장지연의 근대인식 : 언론활동의 사상적 기초에 대한 이해」 『2007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pp.111~117
 김도형(2000) 「장지연의 변법론과 그 변화」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pp.25~83
 김훤주(2008) 「장지연은 변절한 적이 없다」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5월 3일자 기사
 박노자(2005) 『우승열패의 신화』, 한겨레신문사, pp.356~404
 박충석(1982) 『한국정치사상사』, 삼영사, pp.48~67
 오종일(2005) 「장지연의 유학사상」 『한국종교사연구』통권제13호, 한국종교사학회, pp.277~301

- 우남숙(1994) 「자강·독립 사상연구 : 장지연·박은식·신채호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5~49
- 유근호(2004) 『조선조 대외사상의 흐름 : 중화적 세계관의 형성과 붕괴』,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pp.11~34, 281~362
- 유미림(2002)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 지식산업사, pp.282~374
- 윤사순(1976) 「高橋亨의 한국유학관 검토」 『한국학』 12집,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pp.17~24
- 이병현(2001) 「문화전통과 민족역량 -장지연 <대동시선>의 편찬동기분석-」 『동방시화』 3/4집, 동방시화학회, pp.177~178
- 이훈옥(1990) 「장지연의 변혁사상의 형성배경 : 을사오조약 체결 이전을 중심으로」 『윤병석교수화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 pp.365~392
- 이훈옥(1993) 「장지연의 국가관과 정치개혁안연구」 『인하사학』 제1집, pp.135~185
- 임종진(2004) 「위암 장지연의 유교관에 대한 검토 : 퇴계학맥의 근대적 변용에 관한 일고찰」 『철학연구』 제91집, 대한철학회, pp.257~295
- 장지연(1979) 『장지연전서 8』,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pp.443~532, 577~731
- 장지연(1998) 『조선유교연원』, 솔, pp.5~33
- 장현근(2004) 「유교근대화와 계몽주의적 한민족국가 구상 : 박은식·장지연의 국가건설사상」 『동양정치사상사』 제3권 2호, pp.139~168
- 정대수(2005) 「장지연 선생의 언론사적 평가와 친일논란에 대한 비판적 접근」, 『2005년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발표문』, pp.15~28
- 천관우외(1993)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pp.15~186, 505~569
- 최연식(2007) 「조공체제의 변동과 조선시대 중화-사대 관념의 굴절 : 변화 속의 지속」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1호, pp.101~121

- ❖ 투고일 : 2009. 1. 21
- ❖ 심사일 : 2009. 2. 6
- ❖ 심사완료일 : 2009. 2. 12